

# 2 Principles

화려한 '해설'이 아니라,

*'2개의 원칙' 훈련이 안정적 1등급을 '필연적'으로 만든다.*

PRE-2PRINCIPLES (기초편)

강의 복습 해설지

Volume 2. 19~46



이용우(그믐달) 편저

Volume 2 메시지

TO : 현재도 열심히 달리고 있을 수강생님들에게

현재는 2015.12.31. 11시30분입니다. MP3를 귀에 꽂고 11시부터 작업했는데, 배달의 민족으로 제가 좋아하는 볼돼지를 시켜먹고 계속 노트북 앞에 앉아있으니 오늘도 작업시간이 10시간이 넘었네요. 설마 이렇게 쉽게 해가 넘어가는 건가? 의심스러워서 TV를 켜더니 새해를 맞는 행사를 비춰주네요. 맞군요.

쓰다가 두통이 좀 와서 누워있으니 이미 12시가 좀 넘었어요.

‘올해’는 좀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어요.

내가 몇 억씩 투자해서 모의고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이미 공공재인 자료(기출/교육청/릿밋딧 등)를 이용하여,

우리 수강생들이 나를 믿고 적어도 심화강의(2P HIGH LEVEL)까지 같이 훈련을 했다면, ‘필연적’으로 1등급이 나올 정도의 커리큘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미 릿밋딧전까지 독서PART에 대해서는 해설지가 80%이상 완성이 되어가고(덕분에 최저생계만 유지하는 중ㅋㅋ)

문학PART도 곧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이유는 내가 강사로 잘 풀리길 원하는 것도 있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믿고 같이 가는 학생들이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한다는 것이예요.

저는 ‘강박적으로’ 그냥 ‘도움’이 되는 강의도 좋지만, ‘1등급’되는 커리를 쥐야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어느 정도 높은 비율로 해왔고, 할 수 있고, 그것을 프로페셔널하고 학습하기 편하게 주어야겠죠.

여러분은 M사, D사, E사, S사 1타~3타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남다르게 큰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올해 강의에선 많이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아주 독기를 품고 있습니다.

책을 컬러로 만들어드리진 못하지만ㅜㅜ 지문 선정과 수업의 완성도는 압도적인 컬러와 클래스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01.01. 2:01입니다. 저도 독기를 품고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겠죠?

<국어 멘탈 훈련 중요성과 훈련방법>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결론 요약을 하고, 아래는 예시를 첨부하여 자세히 상술할게요.

6,9,수능에서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인 100점도 10분 걸리게 하는 지문(들)이 반드시 나온다] 라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멘탈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문 당 (1) 평균 ( ) 분을 정하고, (2) PASS 하거나 아낀 만큼 HOLD

위의 원칙하에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양민 학살 후 킬러문제 몰빵
2. 킬러문제에 딱 아낀 만큼 씌으로써 뒷 문제들을 정상패턴으로 푼다.
3. 뒷 문제들을 정상패턴으로 풀고, 시간 아낀 만큼 다시 PASS한 문제에 쏟아붓는다.

※PASS한 문제를 풀 시간이 없거나, 돌아와서도 결국 건지는게 없더라도(최상의 경우는 돌아와서 다 맞추는 것입니다), 평균을 맞추어서 적절한 타이밍에 PASS했기 때문에 그 뒤의 문제는 정상적 시간으로 풀었기에 최악의 경우에도 자기 실력이 나오도록 시험변수는 차단이 됩니다.

이 간단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실전연습'을 20회이상하십시오!

'성공한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실제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 PASS를 하더라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경험했던 것처럼)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느낌'이 경험적으로 형성됩니다.

이것은 내 6, 9월 점수보다도 훨씬 더 믿을만한 것입니다. 수능을 잘 볼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개는 '멘탈이 좋아' 라는, 시험장에서 대범한 성격이란 것이 몇몇 사람만의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성공한 경험'을 많이 쌓이면 '이번에도 잘하겠지' 라는 대범한 멘탈이 훈련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시험에 대한 안정감과 집중력으로 이어집니다.

기출분석이 전부가 아닙니다. 매년 일정한 점수를 받기위해서는 이런 시간관리를 통한 멘탈관리가 핵심적으로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실전훈련 문제쓰레기니까 안한다가 아니라 이런 멘탈훈련을 연습을 하세요! (채점 안하고 버리면 그만)

이 글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시간관리'로 '멘탈 관리'하자. '성공한 경험'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아래서 설명할게요. 바쁘신분은 여기까지구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어영역 6월, 9월, 수능시험에서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인 100점도 10분 걸리게 하는 지문(들)이 반드시 나온다]

(\*16수능 이후 추가 수정 : 16부력/돌림힘 지문은 10분이 필요합니다. 예측성공?!)

이것이야말로 확실히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2011 그레고리력

2013 수능이상기체 채권

2014 9 회전관성

2014 수능 전향력/CD드라이브

2015 수능 슈퍼문

2016 수능 부력/돌림힘

쉽게 말해서, 2017 6, 9, 수능에 부력2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어렵게 나온다면 2015 수능처럼, 슈퍼문2+신채호2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문학에서 그런 case가 나올수도 있구요. 무조건 1지문만 어렵구나, 독서지문이구나 이런 기계적인 이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지문은 당연히 (1)낯설거니와 (2)개념이 많고, (3)개념 간 복잡도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추론도 정확하게 하기 어렵습니다.(독서지문으로 가정할 때)

그러므로 10분(이상) 걸려서 풀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하면 7~8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면서 소위 '멘탈'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끝나고 채점해서 결과적으로 “나 100점^^” 이런 고수들도 시험장에서선 그런 지문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소요와 위기감을 느낍니다.

사실 슈퍼문과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결과적인 100점도 10분 걸리게 하는 지문이 하나이상 나온다.]는 것은 그냥 기본 수능 국어시험의 '디폴트' 설정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수능 국어의 '디폴트' 설정을 적절히 대비하지않으면, 멘탈이 박살나는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성적이 좋을 리 없습니다. 심지어는 급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국어시험의 '디폴트' 설정에 맞추어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국어 독서 한지문에 몇분 맞춰놓고 풀어야되요?' 라는 질문은 국어시험의 디폴트 설정에 대한 전형적인 몰이해입니다.

'7분 맞춰놓고 연습해라' 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연습한 학생은

실제 시험장에서 8분 이상 넘어가면 얼굴 빨개집니다. 멘탈이 흔들립니다. “나 망했구나... 아 이씨...”

체감난이도가 팍 올라간 이상 시험을 잘 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괄적인 시간배분은 '쓸데없이' 체감난이도를 높이게 됩니다.

원래 [결과적인 100점도 10분 걸리게 낸 지문]인 것을, 9분 넘었다고 멘탈이 흔들리면 '이상한' 것입니다. 10분 걸려도 되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물론 빨리 정확히 풀수록 좋은 것입니다.)

축구가 90분짜리 경기인데, 80분넘었다고 막 진 것처럼 멘탈무너지는 축구팀이 어떻게 좋은 팀이 될 수 있을까요. 원래 90분동안 하라는게 축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10분동안 풀라고 내는게 '그런 지문들'입니다.

그럼 그런 일괄적인 시간배분은 버려버리고, 어떻게 시간관리를 해야지 멘탈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한 차원 높은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즉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시간을 투입하는' 시간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쉬운 지문엔 아끼고, 어려운 지문엔 충분히” “어려우면 패스!”입니다.

쉬운 지문들은 빨리 풀어서 시간을 충분히 아끼고, 어려운 지문들에는 충분히 시간을 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얼마만큼 아꼈는지? 어떻게 알고 얼마나 충분히 쓰지?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이것입니다.

(1) 지문 당 ‘평균’ 시간을 정해서 평균 중심으로 (2-1) 아낀 만큼 HOLD  
(2-2) PASS

한 지문 당 평균 ( 7 )분을 정해서 이 원칙하에 움직이면 됩니다.

(1) 평균을 중심으로 시간관리를 하면 됩니다.

쉬운 문제에선 평균보다 적게 시간을 쓰면서 가주고,

자신 있는 영역에서도 역시 평균보다 적게 시간을 쓰면서 가주고,

어려운 지문에서는 (2-1)평균보다 아낀 만큼 시간을 더 투입해주고, 평균을 초과하면 (2) PASS해주고

뒤에서 평균보다 아껴서 돌아와서 어려운 지문에 (2-1) 아낀만큼 다시 시간을 더 투입해주고

이것으로 시험에서의 많은 변수를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A1과 A2가 똑같은 지능에 똑같은 환경으로 똑같은 공부방법으로 공부를 한 똑같은 수준의 인물들이라고 할 때, 이 ‘시간관리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현격히 드러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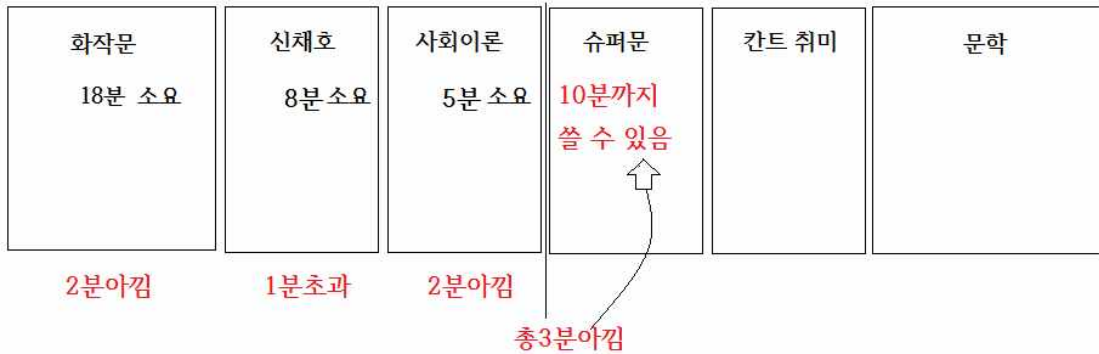
매번 일정수준의 점수 이상의 맞을 수 있는 vs 편차가 심한 스타일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2015학년도 수능에 적용해봅시다! 많은 수험생들이 겪은 어려움이 어떻게 극복되는지

독서, 문학, 화작문 3개의 파트별로 각각 평균 7분(총28분), 평균 7분(총28분), 평균20분 이런 식으로 구성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 +- 다르게 설정해도 돼요.)

한 문제당 쪼개는 것은 너무 시간에 강박을 갖게 되고,(물론 너무 지체되면 안되겠지만) 한 지문 단위로 쪼갭니다. 물론 화작문은 지문이라는 개념이 없으니 전체적으로 보면 되구요.(정 불안하면 문제별로 평균으로 쪼개세요)

2015학년도 수능 지문들을 주욱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위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슈퍼문 지문을 풀기 전 (1) 평균 7분을 중심으로 3분을 아꼈으니,  $7+3=10$ 분을 (2-1)아깍 만큼 HOLD하면 10분을 쓰더라도 (뒤의 것들을 정상적인 시간 하에 풀 수 있다는 믿음 하에선) 전혀 멘탈이 금갈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상위권들도 이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괜히 정상적인 상황에 왜 멘탈이 금가나요?

그러나 10분이 초과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2-2)PASS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 라는 게 체감이 될 것이고, 다시 자기 페이스를 찾는 게 정말 어려워 집니다.

한편 7분정도 경과했을 때, 더 이상 슈퍼문 지문이 실마리가 안보이면 넘어(PASS)가서 다 풀고 시간을 아껴서 마지막에 돌아와서 여기에 (2-1)물빵을 하는 게 올바른 시간관리입니다.

왜냐하면, 뒤의 문제는 정상적인 시간패턴대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다른 문제들은 내가 준비해온 대로 시간을 투입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어쨌든 뒤의 문제를 준비한만큼 충분히 풀었다면), 가장 안 좋은 결과는 극단적으로 슈퍼문 지문을 다 틀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실력'이니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결과는 문학에서 시간을 아껴서 돌아와서 슈퍼문 지문에 시간을 물빵하여 다 맞추는 것입니다. 더할 나위없이 좋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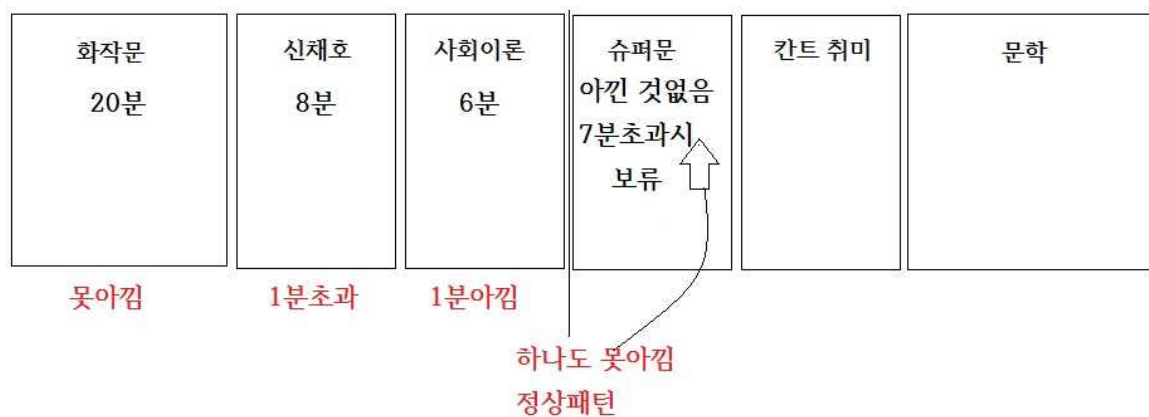
물론 과학기술지문이 나오면 PASS하겠더라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킬러지문=오직 과학기술지문'이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전략입니다.

만약 킬러지문 = 인문, 경제지문 etc... 라면

신체호지문도 상당한 난이도였는데, 사람에 따라 인문지문이니 PASS를 하지 않고 이미 붙들고 상당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첫 지문이니 화작문에서 아낀 만큼 쓰는 것이 MAX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당연히 7분정도까지 열심히 풀다가 PASS를 해주어야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죠.

이런 case처럼 아낀 게 없는 사람은 7분이 초과 시 반드시 PASS해주는 게 낫습니다. 뒤에서 확실히 아낄 자신이 있으면 2분정도를 더 써도 됩니다.



문학까지 다 풀고, 시간을 아껴서 다시 돌아와서 슈퍼문을 다 맞춰내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뒤의 문제를 다 충분히 평소 평균 시간만큼 투입했으니 뒤의 문제에 대한 침착한 대응이 비교적 가능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평균을 중심으로 모든 시간이 다 초과되는데요? 라는 사람은 기출분석을 통해서 실력을 '제대로'된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상식적이지만, 좀 더 명확한 방법을 연습해야합니다.

지문 당 (1)평균을 중심으로 (2-1) 아낀만큼 HOLD  
(2-2) PASS 하라.

이것을 연습해야하는 이유는 단하나입니다. 시간관리라는 것은 결국 멘탈관리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별로 당황하지 않는 느낌' '언제나처럼 극복할 수 있다는 느낌'

연습해서 얻어야할 감각은 PASS(보류)한다고 해서 아 망했다... 당황하지 않는 감각을 만들어야합니다. 이것을 위기관리능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술을 잘 마친 류현진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인터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득점권에 주자를 내보내는 위기(crisis)를 겪어도 멘탈이 흔들리는게 아니라, 류현진은 제구력이 더 좋아지고, 유리하게 이용한다. 이런 것인데요

한마디로 위기관리능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류현진이 무사만루의 위기 때, 결국 실점하지 않고 이닝을 마친 '성공한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류현진은 생각할 때, 무사 만루라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집중력을 발휘해 안정감을 찾습니다. 결국 또다시 실점없이 이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수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문같은 위기가 와도 보류(PASS)했다가, 침착하게 문제를 끝까지 풀고 다시 돌아와서 다 맞추는 '성공한 경험'을 쌓아야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류현진처럼 16학년도 수능에 슈퍼문같은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집중력을 발휘해 남들은 다 멘탈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결국 돌아와서 슈퍼문도 맞춰내고 수능국어 잘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류현진이 무사만루에서 결국 실점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위기를 겪고 침착히 잘 했는데도 잘 안될 수 있습니다만, 핵심은 위기 때, 보류(PASS)하더라도, 소위 '멘탈'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미리 '성공한 경험'을 쌓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슈퍼문같은 지문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설정해놓고 '성공한 경험'을 하십시오 최소 20회이상 그래서, PASS하더라도 멘탈이 흔들려도 침착하게 풀어서 돌아와서 다 맞춰내는 경험을 수십번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감각(느낌)이 바뀔 것입니다. 'PASS? 뭐 늘 있는 일인데...뭐' '이번에도 할 수 있어' 저절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고회로가 형성됩니다.

이런 류현진을 향해 다저스 매팅리 감독은 "류현진은 언제나 위기일 때 벗어나는 능력이 탁월하다"면서 "류현진은 상대팀이 강공으로 나오면 구부러질 때는 있어도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그는 필요할 때 완급 조절을 잘하는 능력이 있으며, 위기가 왔을 때 제구력이 더 좋아진다"며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가끔 다른 투수들을 보면, 잘 던지다가도 득점권에 주자를 내보내면 급격히 긴장하며 태도가 돌변할 때가 있다"며 "그러나 오히려 류현진은 주자를 내보면 점을 유리하게 이용할 줄 안다"는 말로 류현진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칭찬했다.

이런 것은 '연습' '성공한 경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시험장의 멘탈을 흔드는 변수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결과적인 100점도 10분걸리게 하는 지문이 나온다] 라는 6월 모의고사에서 확실한 사실에 대한 확실한 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6월에는 연습양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9월 수능 때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시간관리'로 '멘탈 관리'하자. '성공한 경험'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1)평균( )분 (2-1) 아낀 만큼 HOLD  
(2-2) PASS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9수능)

(가) 최근 들어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하나로 창조 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창조 도시는 창조적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이다. 즉 창조 도시는 인재들을 위한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혁신적이고도 유연한 경제 시스템을 ㉠ 구비하고 있는 도시인 것이다.

(나) 창조 도시의 주된 동력을 창조 산업으로 볼 것인가 창조 계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창조 산업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창조 산업이 도시에 인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다양성을 불어넣음으로써 도시의 재구조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창의적 기술과 재능을 소득과 고용의 원천으로 삼는 창조 산업의 예로는 광고, 디자인, 출판, 공연 예술, 컴퓨터 게임 등이 있다.

(다) 창조 계층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개인의 창의력으로 부가가치를 ㉡ 창출하는 창조 계층이 모여서 인재 네트워크인 창조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는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창조 계층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 제고하는 관건이 된다. 창조 계층에는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건축가, 프로그래머, 영화 제작자 등이 포함된다.

(라) 창조성의 근본 동력을 무엇으로 보든, 한 도시가 창조 도시로 성장하려면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을 유인하는 창조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창조 도시에 대한 논의를 ㉣ 주도한 랜드리는, 창조성이 도시의 유전자 코드로 바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인의 자질, 의지와 리더십,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근성, 조직 문화, 지역 정체성, 도시의 공공 공간과 시설, 역동적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마) 창조 도시는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추진 과정에서 위험이 ㉤ 수반되기도 한다. 창조 산업의 산출물은 그것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가치 평가를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창조 계층의 창의력은 표준화되기 어렵고 그들의 전문화된 노동력은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고유의 특성을 면밀히 고찰하여 창조 산업, 창조 계층, 창조 환경의 역동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독서 지문 분석

첫단락 - 제재가 무엇인가?(->서론인가?)

(제재는 무엇인가?) 창조 도시

창조 도시에 대한 논의 배경을 제시하며 창조 도시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제시되었으므로, 서론입니다.

본문 2단락 - 각 문단의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열거형 내포’는 항상 중요하다) 첫 줄에 열거형 내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 창조산업을 중시하는 관점에 관하여 나옵니다. 빨리 창조 계층을 중시하는 관점을 찾아 나섭니다. 3문단에 있습니다!

(일반적 진술) 창조 도시의 주된 동력에 대한 논의-①창조 산업을 중시하는 관점

창조 도시의 주된 동력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 그 동력을 창조 산업으로 보는 관점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단락 - ① 각 문단의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② 관계가 나타난 부분/구조도

(일반적 진술) 창조 도시의 주된 동력에 대한 논의-②창조 계층을 중시하는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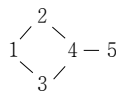
창조 도시의 주된 동력을 창조 계층으로 보는 관점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문단과의 관계) 창조 도시의 주된 동력에 대해서 산업vs 계층 대조되고 있습니다.

본문 4단락 - 각 문단의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일반적 진술) 창조성의 근본 동력을 무엇으로 보든, 한 도시가 창조 도시로 성장하려면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을 유인하는 창조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2, 3 문단과의 관계) 앞서 제시된 창조성의 근본 동력이 무엇으로 보든, 창조 환경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결론 or 본문일 수 있다.  
기준은 '주제'다.

본문 4단락 - ①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② 문단 간 관계? - 관계말해주는 문장/구조도

마지막 문단 - 결론인가? <- 주제제시

①설명문 : 제재+본문내용일반화+@

②논설문 : 가치판단 또는 주장

(주장이 있다. -> 주제제시 -> 결론) 본문 내용이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문장에 글쓴이의 견해가 드러납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19.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창조 도시의 개념
- ② (나) : 창조 도시의 동력을 창조 산업으로 보는 관점
- ③ (다) : 창조 도시의 동력을 창조 계층으로 보는 관점
- ④ (라) : 창조 환경의 필요성과 구성 요소
- ⑤ (마) : 창조 도시의 문제점과 전망

독서 지문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정답을 ⑤번으로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적 진술을 묻고 있습니다.

<맞게 고치기> 시도해보세요 '문제점'을 살려서 맞게 고치세요.

(마)에서는 창조 도시의 문제점과 전망이 아닌, 창조 도시 **형성하는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시'와 'B시'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시는 제조업 퇴조에 따른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의 산업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A시 시장은 사업 추진체를 구성하고, 이해 당사자 설득에 힘써 왔다. 공장을 미술관으로 개조하고 보행자 전용의 아름다운 현수교를 세워 관광객을 유치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있다.

○B시는 창의적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많다. 대기업 부설 연구 기관이 많아 자본도 많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 연구 기관들은 지역 산업체와의 교류가 부족해 경제적 부(富)가 지역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이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화된 연구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 ① A시는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을 중시하고 있군.
- ② A시는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창조환경을 마련하고 있군.
- ③ B시는 창조 환경의 요소 중 개인의 자질이 우수하군.
- ④ B시는 창조 계층과 산업 환경 간에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군.
- ⑤ A시와 B시 모두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창조 도시에 접근하고 있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④ [명시적 근거] <보기> '그러나 이 연구 기관들은 지역 산업체와의 교류가 부족해 경제적 부(富)가 지역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오답 선택지 해설>

① [명시적 근거] <보기> '공장을 미술관으로 개조하고 보행자 전용의 아름다운 현수교를 세워'

② [명시적 근거] <보기> 'A시 시장은 사업 추진체를 구성하고, 이해 당사자 설득에 힘써 왔다.'

③ [명시적 근거] <보기> 'B시는 창의적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많다.'

⑤ [명시적 근거] <보기> 내용 전체

2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창조 산업은 미래 예측성과 성공 가능성이 크다.
- ② 창조 도시를 위해서는 기존 환경을 단시간에 개조해야 한다.
- ③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이 갖추어져야 창조 환경이 마련된다.
- ④ 창조 도시에는 문화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⑤ 창조 계층의 창의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표준화해야 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 [명시적 근거] 1문단 4~6행

<오답 선택지 해설>

① [명시적 근거] 5문단 2,3행

② [명시적 근거] 5문단 1행

③ [명시적 근거] 4문단 1행

⑤ [명시적 근거] 5문단 4행

22.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갖추고                      ② ㉡: 늘리는
- ③ ㉢: 높이는                      ④ ㉣: 이끈
- ⑤ ㉤: 따르기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9수능)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인과가 도출된다.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 하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 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 왔다.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진술에서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A와 B가 특정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집단 수준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연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집단 수준의 인과는, 'A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나 'A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병의 실제 원인은 다른 것인 경우' 등의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의 인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요인들이 우연적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생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의 여러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의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려면 개별자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훼손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서 지문 분석

첫 단락 - 제재가 무엇인가?(->서론인가?)

(제재는 무엇인가?) '집단 수준의 인과는 필연성을 갖는가?' 로 뽑아낼 수 있으면 정말 훈련이 잘 된 학생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첫 문단에 집단 수준의 인과는 필연성을 지닌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 까지 내용만 나왔으니, 제재를 제시하지 않았으니(이 내용이 관통할 리가 없잖아요) 서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제재를 머릿속에 떠올리겠죠?

제재는 무엇일까? 제재는 글 전체를 관통한다.  
본문 2단락 - 각 문단의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일반적 진술)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앞 문단에서 제시된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단 수준 인과를 개연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로써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가 별개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재는 글 전체를 관통한다) 1문단에서 제재가 명확하게 안 나왔기에 (못 뽑았다고 가정한다면) 2문단, 3문단 읽어나가면서 관통하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합니다. 바로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적인가? 논쟁' 이렇게 잡아 야합니다. 1문단은 서론이 아니고, 본문이었습니다.

1문단 :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2문단 : 집단 수준의 인과가 개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본문 3단락 - ① 각 문단의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② 관계가 나와 있는 문장/구조도

(1, 2문단과의 관계)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이 부분이 바로 2문단과의 관계가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곱씹어보세요. '2문단과 3문단은 같은 놈들이다.' '개연적 = 독립적' 파악할 수 있어야합니다.

- < 1 (필연적이라고 믿는 사람들)
- < 2 - 3 (개연적=독립적이라고 믿는 사람들)

(일반적 진술)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 문단은 결론 or 본문일 수 있다.  
기준은 '주제'다.

본문 4단락 - ①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② 문단 간 관계? - 관계말해주는 문장/구조도  
마지막 문단 - 결론인가? <- 주제제시  
①설명문 : 제재+본문내용일반화+@  
②논설문 : 가치판단 또는 주장

(주제가 있는가?) 주제가 없습니다. 첫 줄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이에 대해 연관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전히 필연성이 성립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지문 끝까지 읽었을 때, 본문 내용이 일반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주제가 없는 본문입니다.

(일반적 진술 & 다른 문단들과의 관계) 첫 줄입니다.

- < 1 - 4 (필연적이라고 믿는 사람들)
- < 2 - 3 (개연적=독립적이라고 믿는 사람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9수능)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인과가 도출된다.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 하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 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 왔다.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진술에서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A와 B가 특정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집단 수준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집단 수준의 인과는, 'A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나 'A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병의 실제 원인은 다른 것인 경우' 등의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의 인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요인들이 우연적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생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의 여러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의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면 개별자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훼손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3. 위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②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대비되는 두 관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 ⑤ 일반인의 상식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위 글의 제재는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이 있는가? 에 대한 두 관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물론 예를 들었는지도 확인해줘야 합니다.)

24.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하나의 결과에는 항상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
- ②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③ 개별자 수준의 인과는 집단 수준의 인과를 일반화한 것이다.
- ④ 집단 수준의 인과는 개별자 수준 인과의 개연성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 ⑤ 집단 수준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집단 수준과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 [명시적 근거] 2문단 1행, 3문단 1행  
 <오답 선택지 해설>  
 ① [명시적 근거] 2문단 11행  
 ② [명시적 근거] 1문단 마지막행  
 ③ [명시적 근거] 1문단 7행  
 ④ [명시적 근거] 4문단

25. ㉠의 입장에서 <보기>의 (가)로부터 (나)를 이끌어 내려 할 때,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가) •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다.  
 • 영희네는 좋은 씨앗을 심어 좋은 열매를 수확했다.  
 • 철수네는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물을 제때 주지 않아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우리 집은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병충해로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

(나) •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 사이의 필연적인 인과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는다.**

- ① 좋은 씨앗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 ② 우리 집과 철수네가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 ③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 ④ 다른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 ⑤ 병충해 방제와 적절한 물 공급은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의 입장은,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필수적 요인과 나머지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수적 요인이 원인이라면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이 모두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 (가)에서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필수적 요인이고, 물을 주는 것과 병충해를 막는 것은 부수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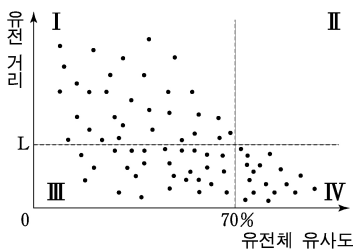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수능)

(가) 일반적으로 동식물에서 종(種)이란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또는 '외양으로 구분이 가능한' 집단을 뜻한다. 그렇다면 세균처럼 한 개체가 둘로 분열하여 번식하며 외양의 특징도 많지 않은 미생물에서는 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

(나) 미생물의 종 구분에는 외양과 생리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미생물이 어떻게 배양되는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모든 미생물에 적용될 만한 공통적 요소가 되기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날 미생물 종의 구분에는 주로 유전적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미생물의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진 많은 유전자로 구성되는데, 특정 유전자를 비교함으로써 미생물들간의 유전적 관계를 알 수 있다. 종의 구분에는 서로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 주는 유전자를 이용한다. 유전자 비교를 통해 미생물들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유전 거리'라 한다. 유전 거리가 가까울수록 같은 종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진다.

(다) **하지만 유전자 비교로 확인한 유전 거리만으로는 두 미생물이 같은 종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별하기 어렵다.** 특정 유전자가 해당 미생물의 전체적인 유전적 특성을 대변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라)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미생물들 간의 유전체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전자를 대상으로 유전적 관계를 살펴야 하지만, 수많은 유전자를 모두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유전체의 특성을 화학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얻어진 유전체 유사도는 종의 경계를 확정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그림에서 각 점은 두 미생물 사이의 유전 거리와 유전체 유사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을 보면, 두 미생물의 유전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유전체 유사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닐 수 있다. 반면,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일 경우 유전 거리는 일정 수준(L) 미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서로 유전 거리가 가까우며 70% 이상의 유전체 유사도를 보이는 미생물 집단'이라고 하는 미생물 종의 정의가 도출된다.

(마) 유전적 특성을 이용한 미생물의 종 구분은 학술적 연구 외

에도 의학이나 미생물 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향후 유전체 분석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미생물의 종을 보다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독서 지문 분석법

첫 단락 - 제재가 무엇인가? (-> 서론인가?)

(물음, 화제제시 -> 대답 pattern) 첫 문단의 질문이 나오는 패턴은 아주 흔합니다. 제재로 유력합니다. 제재로 가정합니다. (물론 '원칙'은 제재는 글 전체를 관통해야 합니다. 가정하면서 관통하는지 점검하면서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재는 무엇일까?) 한 개체가 둘로 분열하여 번식하면서 외양의 특징도 많지 않은 미생물을 어떤 기준으로 종을 구분할까? (서론 가정)

본문 2단락 - ①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일반적 진술) 미생물 종 구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외양과 생리적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유전자를 비교하는 '유전 거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단락 - ①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② 문단 간 관계? - 관계말해주는 문장/구조

(일반적 진술 & 관계) 첫 문장이 일반적 진술이자, 2문단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3 단락에서는 2문단의 유전자 비교로 확인하는 '유전 거리'만으로는 같은 종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단락 - ①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② 문단 간 관계? - 관계말해주는 문장/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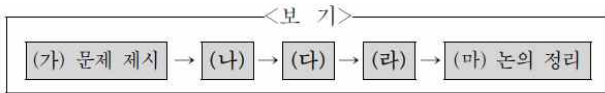
(2,3 문단과의 관계) 첫 문장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으로 보아 (다) 단락에서 서술한 '유전 거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일반적 진술) 첫 줄입니다.

(제재는 글 전체를 관통한다.) (라) 단락 까지 읽었을 때 제재는 '미생물 종의 종 구분은 어떻게 할까?'라는 정도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단락에서 제시한 종 구분 방법의 한계가 나오고 이어서 그 한계를 보완하는 유전체 유사도 측정 방법이 (라) 단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글 전체를 '관통'합니다.

(세부 내용) (다) 단락에서 '유전 거리'의 한계에 대한 보완책으로 유전체 유사도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그림)은 '유전체 유사도'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6. <보기>는 위 글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나)~(라)에 해당하는 것은?



(나)	(다)	(라)
① 해결 방법	해결 방법의 한계	보완 방법
② 주장 제시	예상 반론 제시	반론 비판
③ 개념 설명	사례 제시 개념	제정립
④ 가설 제시	가설 검증	이론 도출
⑤ 관점 확인	근거 제시	사례 설명

<정답 선택지 해설>  
 독서분석법에 의하여 제재와 일반적 진술 & 관계를 명확히 파악을 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단락에서 미생물 종 구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나)단락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서술하고 있다. (다)에서는 역접 관계로 보완책을 찾습니다. (라)에서 첫 문장은 (다)까지 나온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7.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종 구분에 사용되는 유전자는 무작위로 선택한다.
- ② 미생물의 생리적 특성은 배양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③ 외양보다 유전적 특성이 미생물 종을 명확하게 구분해 준다.
- ④ 동식물은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이어갈 수 있다.
- ⑤ 미생물의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전자로 구성된 다.

③번선지 독서분석법에 의하면, 제재 그 자체입니다.  
 2단락에서 외양을 사용한 미생물 종 구분은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해결책으로 유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유전지도-> 유전체 유사도)

①번선지  
 [명시적인 근거] (라)단락에서 유전체의 특성을 화학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유전체 유사도를 얻었다. 또한 6번째 줄에서 '이렇게 얻어진 유전체 유사도는 종의 경계를 확정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결론] 종 구분에 사용되는 유전자는 화학적 실험에 의해서 생긴 유전자를 의미하므로 무작위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②번선지  
 [명시적인 근거] (나) 단락 두 번째 문장 '이러한 특성들은 미생물이 어떻게 배양되는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연결고리] 두 번째 문장에서 '이러한 특성'은 앞 문장에서 말한 외양& 생리적 특성이므로, 생리적 특성은 미생물이 어떻게 배양되는지에 따라(배양 환경) 바뀔 수 있다.  
 [결론] 그러므로 미생물의 생리적 특성이 배양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판단은 옳지 못하다.

④번선지  
 [명시적인 근거] 1 단락 첫 문장에서 동식물에서 종(種)이란 '같은 개체끼리 교배 하여 자손을 남길 수 있는'  
 [결론] 그러므로 '동식물이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선지는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고, 서로 다른 종을 교배한 경우의 결과도 추론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번선지  
 [명시적인 근거] (나) 단락 6번째 줄 '미생물의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진 많은 유전자로 구성되는데~'  
 [결론] 선지에서 '하나의'를 '수많은'으로 바꾸기만 해도 정답이 가능하다.

# 그믐달 국어

28. 위 글의 ‘그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 영역은 두 미생물 간 유전 거리가 L 이상이고 유전체 유사도가 70 % 미만이므로 같은 종이 아님을 나타낸다.
- ② II영역에 점이 없는 것은 두 미생물 간 유전체 유사도가 70 % 이상인 경우 L 미만의 유전 거리만을 보이기 때문이다.
- ③ III영역은 두 미생물 간 유전 거리가 L 미만이라도 유전 거리만으로는 종의 경계 구분이 어려움을 나타낸다.
- ④ IV 영역은 두 미생물 간 유전체 유사도가 70 % 이상인 경우 유전 거리도 L 미만이어서 같은 종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⑤ I ~ IV 영역은 유전 거리를 알면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⑤번선지  
 [명시적인 근거] 4단락 9행 ‘그림을 보면, 두 미생물의 유전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유전체 유사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연결논리] 유전거리가 가깝더라도 유전체유사도는 반드시 70% 이상이지는 않다.  
 [결론] 유전거리를 알더라도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①번선지  
 [명시적인 근거] 그림 + (라) 단락 마지막 문장에서 미생물 종의 정의를 ‘서로 유전 거리가 가까우며 70% 이상의 유전체 유사도를 보이는 미생물 집단’ 정의  
 [연결고리] ‘그림’에서 종의 정의를 확정한 부분은 (4)뿐이다.  
 [결론] ‘그림’은 유전체 유사도가 70%이상이고 유전거리가 L미인 부분만 종의 정의가 도출되므로, 그 외의 부분인 (1)은 같은 종이 아니다.

②번선지  
 [명시적인 근거] 그림 + 4단락 10행 ‘유전체 유사도가 70 % 이상일 경우 유전 거리는 일정 수준 (L) 미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 그러므로 II영역은 점이 없다.

③번선지  
 [명시적인 근거] ‘그림’에서 유전 거리가 L미인 부분을 보고 그 중에서도 유전체 유사도 70%를 기준으로 집단이 달라짐을 확인한다.  
 [연결고리] (라) 단락 마지막 문장에서 유전체 유사도가 70%이상이고 유전 거리가 L미인 (4)부분을 ‘같은 종’이라고 정의한다.  
 [결론] 유전 거리가 L미이라도 유전체 유사도가 70%를 넘느냐에 따라서 ‘같은 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유전 거리만으로 종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④번선지  
 [명시적인 근거] (라) 단락 마지막 문장에서 ‘서로 유전 거리가 가까우며 70% 이상의 유전체 유사도를 보이는 미생물 집단’이라고 종의 정의를 도출했다  
 [결론] 종의 정의는 서로 유전 거리가 가까우며 70% 이상의 유전체 유사도를 보이는 미생물 집단이다.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9평가원)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우편물들은 발송 지역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우편물 분류 작업은 우편번호 숫자를 인식함으로써 자동화될 수 있다. 이때 자동분류기는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기반한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한다. ①학습은 상호 작용의 정도에 따라 경험하는 데이터가 달라지고, 이러한 학습 데이터에 따라 자동분류기의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즉, 자동분류기는 단순히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여 스스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학습 데이터				실험 데이터
필기체 숫자	5500				5
입력 특징					
목표치	5	5	0	0	

우편번호 자동분류기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편번호 숫자를 하나씩 분할하고, 0부터 9까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입력 특징을 찾아야 한다. 위 그림은 필기체 숫자를 가로, 세로 8등분하여 연필이 지나간 자리를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주어, 입력 특징을 추출한 것이다.

다음으로 추출된 특징으로 학습할 때 분류기에 목표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감독할 수 있다. 즉, 입력 특징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되면 분류기는 데이터를 제시된 목표치로 분류하도록 학습한다. 이렇게 목표치를 이용하는 학습을 ①감독학습이라 한다. 숫자 분류기에 0부터 9까지 각각의 숫자에 대한 목표치가 제공되면, 분류기는 감독학습을 수행한다. 위의 그림에서 분류기는 네 개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입력 특징과 목표치를 통해 학습한다. 이 학습을 통해 두 개의 '5'와 두 개의 '0'을 각각 같은 숫자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5'와 '0'을 서로 다른 숫자로 분류해 내는 함수를 만든다. 감독학습을 통해 올바르게 학습하였다면, 그림의 실험 데이터는 숫자 '5'로 인식된다.

그러면, 목표치를 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할까? 목표치가 없을 때는 학습 데이터로 주어진 입력 특징들의 유사성을 찾아 군집화한다. 이와 같이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는 학습을 무감독학습이라고 한다. 예컨대 위 그림에서 네 개의 필기체 숫자에 대한 입력 특징만 주어지면, 무감독학습은 비슷한 입력 특징을 가진 숫자들을 ②모아 '5' 또는 '0'에 대해 군집화하는 함수를 만든다. 무감독학습을 통해 올바르게 학습하였다면, 실험 데이터는 '5'의 군집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학습된 자동분류기는 실험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는지에 따라 그 성능이 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편번호 자동분류기는 우편물을 지역별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독서 지문 분석법

첫 단락 - 제재가 무엇인가? (-> 서론인가?)

(제재는 무엇인가?) 우편분류기일까요? 우편분류기 학습일까요?

(제재를 결정하는 기준) 제재를 결정하는 기준은 '관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편분류기는 너무 넓고, 우편분류기 학습(과정)이 딱 명확하게 관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2,3,4문단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학습(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제재는 우편분류기 학습입니다.

(서론인가?) 제재가 제시되었으니 서론이라고 가정합니다.

본문 2단락 -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일반적 진술) 밑줄 쳐진 첫 줄입니다. '먼저' 우편번호 숫자를 하나씩 분할하고, 입력특징을 찾아야 한다.

('그림'은 항상 중요하다) 그림을 **보아야지만**, '입력특징'이 무엇인지, 3문단에서 '목표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예시로 작용하고 있죠. 예시는 뭐다? 예시는 **강패다**.

(먼저, 다음으로, 또 etc) 주로 열거, 통시적 구성, 과정에서 주로 쓰입니다. 먼저가 나오면 다음이 무엇일까에 주목해 읽고, 다음으로, 또가 나온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지 상기해가며 읽어야 합니다.

본문 3단락 - ①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 ② 문단 간 관계? - 관계말해주는 문장/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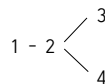
(일반적 진술 & 2문단과의 관계) 첫 줄은 관계와 일반적 진술을 모두 말해주고 있습니다. 2단락에서 추출된 (입력)특징을 가지고 목표치를 제시해서 감독 학습을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즉 2단락 다음 3단락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부내용) 목표치를 주어 학습하면, 함수를 만들어 낸다.

본문 4단락 - ①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 ② 문단 간 관계? - 관계말해주는 문장/구조도

(일반적 진술 & 2문단과의 관계) 역시 첫 줄에 일반적 진술과 2,3 문단과의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목표치를 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 이 말에 내포된 의미는 목표치를 주는 경우가 있고(3문단), 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것이 바로 4문단입니다. 그러므로 목표치를 주고, 줄 수 없을 때의 학습이 3, 4문단으로 각각 병렬적으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독서분석법의 직접출제) 첫 문제의 정답 ⑤이 4문단의 일반적 진술이자, 관계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문에서 거시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두 번째 문제는 대놓고, 2, 3문단의 내용('일반적 진술')과 '관계'에 주목해서 물어 보고 있습니다. '입력특징에, 목표치를 주고 학습시켜서, 함수를 만든다.'

마지막 문단은 결론 or 본문일 수 있다.  
기준은 '주제'다.

본문 4단락 - ①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② 문단 간 관계? - 관계말해주는 문장/구조도  
마지막 문단 - 결론인가? <- 주제제시

① 설명문 : 제재+본문내용일반화+@  
② 논설문 : 가치판단 또는 주장

(마지막 문단은 결론일수도, 본문일수도 있다. 기준은 '주제'가 있는가?) 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줄 쳐진 부분이 본문내용이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을 보면, 2, 3, 4문단의 학습과정이 일반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결론입니다.

23. 위 글의 '우편번호 자동분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동분류기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우리나라 우편번호 자동분류기는 총 6종류의 목표치를 이용한다.
- ③ 자동분류기의 학습은 일정한 종류의 필기체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다.
- ④ 자동분류기는 0부터 9까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입력 특징을 사용한다.
- ⑤ 자동분류기의 학습은 필기체 숫자의 목표치가 없으면, 유사한 입력 특징을 가진 것끼리 모은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독서분석법이 직접출제 된 문항입니다. 4문단의 일반적 진술이 ⑤번 선택지 그 자체다. 지문에서 자세히 근거를 찾는 단계로 가기 전에 정답임을 아는 것이 이상적이다.

[명시적인 근거] 4단락 1행 '그러면, 목표치를 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할까? 목표치가 없을 때는 학습 데이터로 주어진 입력 특징들의 유사성을 찾아 군집화한다.'

[결론] 목표치를 주기 어려울 때는, 유사한 입력 특징을 가진 것끼리 모은다.

<오답 선택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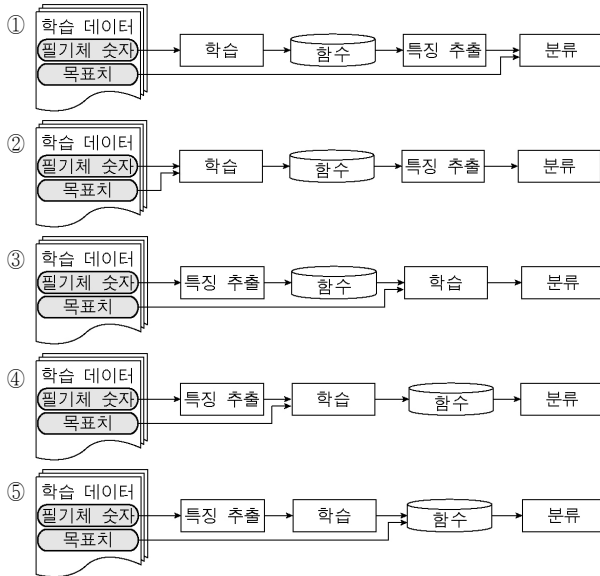
①번 1단락 5행

②번 [명시적인 근거] 2단락 2행 '0부터 9까지의 목표치를 이용한다'  
[결론] 10 종류의 목표치를 이용한다.

③번 [명시적인 근거] '그림'  
[연결논리] '그림'에서 보듯이 필기체 숫자는 무한한 형태다.  
[결론] 그러므로 일정한 종류의 필기체 숫자가 아니다.

④번 [명시적인 근거] 2단락 2행 '0부터 9까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입력 특징을 찾아야 한다.'  
[연결논리] 잘 구별하는 것과 오히려 차이를 명확히 해준다는 의미이니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틀렸다.  
[결론] 자동분류기는 0부터 9까지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입력 특징을 사용한다.

24. ㉠을 이용한 필기체 숫자 분류기의 구성도로 옳은 것은?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독서분석법 상 2단락과 3단락의 일반적 진술과 관계에 주목해서 읽었다면, 쉽게 ④을 택할 수 있다. 2단락 입력특징을 추출하고, 이에 목표치를 주어 학습하고, 함수를 만들어 낸다.

25.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취합(聚合)하여      ② 융합(融合)하여
- ③ 조합(組合)하여      ④ 규합(糾合)하여
- ⑤ 결합(結合)하여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6평가원)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국정의 운영을 맡기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근대 정치의 고전적인 딜레마가 내포되어 있다. 가령 입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소속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가정해 보자. 누구의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의 행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뜻에 따라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조항에서 근거를 ㉔ 찾으면 될 것이다. 이 주장에서와 같이 대표자가 자신의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대표 방식을 ㉕ 명령적 위임 방식이라 한다.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는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가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다를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4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는 이상 입법은 국회의원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회의원 각자가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보다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시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대표자가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방식을 ㉖ 자유 위임 방식이라고 부른다.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구체적인 국가 의사 결정은 대표자에게 맡기고, 국민은 대표자 선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통제한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국민이 갖는 이 대표자 선출권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유 위임 방식은 헌법 제1조 제2항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되어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대표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㉗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독서 지문 분석

첫 단락 - 제재가 무엇인가?(->서론인가?)

(제재가 무엇인가?) 국민과 대표자 중 누구의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 옳을까? 제재가 제시되었으므로, 서론입니다.

본문 2단락 - 각 문단의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일반적 진술) 국민의 의사 우선 - 명령적 위임 방식  
대표자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명령적 위임 방식이 제시하고, 그것의 장점뿐 아니라, 문제점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단락 - ①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 ② 문단 간 관계? - 관계말해주는 문장/구조도

(일반적 진술 & 2문단과의 관계) 입법은 국회의원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문단과의 관계는 '대비' 됩니다.

본문 4단락 - 각 문단의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3문단과의 관계) 첫 줄을 읽어보세요. '3문단을 상술하고 있는 문단인군' 스스로 느껴야합니다.

(일반적 진술) 이와 같이 대표자가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방식을 자유 위임 방식이라고 한다.

앞서 말한 국회의원의 의사를 우선하는 대표 방식으로 자유 위임 방식을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결론 or 본문일 수 있다.  
기준은 '주제'다.

본문 5단락 - ①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② 문단 간 관계? - 관계말해주는 문장/구조도

마지막 문단 - 결론인가? <- 주제제시  
①설명문 : 제재+본문내용일반화+@  
②논설문 : 가치판단 또는 주장

(주제가 있는가?) 본문내용일반화가 안되었죠? 자유 위임방식의 문제점이 첫 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부적으로 읽어나가면서 마지막 줄까지 일반화됐는지를 살짝 염두하세요. 없습니다. 본문입니다.

(일반적 진술 & 다른 문단들과의 관계) 3, 4문단에서 이야기한 자유위임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작합니다. 자유위임에서는 대표자를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이야기합니다.

32.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견해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두 견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③ 두 견해가 서로 인과 관계에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 ④ 두 견해의 공통점을 부각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한 견해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른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독서분석법을 직접적으로 평가한 문항입니다. 제제부터 주제까지의 글의 흐름을 떠올려보세요.  
국민의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와 대표자의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33. <보기>의 상황에 ㉠, ㉡을 적용할 때, 타당한 것은? [3점]

<보기>

어떤 나라의 의회 의원인 A는 법안 X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소속 지역구 주민들은 법안 X가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되리라는 우려에서 A에게 법안 X에 반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① ㉠ : A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때는 X에 찬성할 수 있다.
  - ② ㉠ : A는 지역구 주민의 의사가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면 기권해야 한다.
  - ③ ㉡ : A는 반대하기로 선거 공약을 했다면 X에 반대해야 한다.
  - ④ ㉡ : A는 소속 정당의 당론이 찬성 의견이라면 X에 찬성해야 한다.
  - ⑤ ㉡ : A는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더라도 X에 찬성할 수 있다.
- ㉠은 국민의 의사를 우선하는 입장이고, ㉡은 대표자의 의사를 우선하는 입장입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 ㉡의 입장에 따르면, A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더라도 X에 찬성할 수 있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국가 이익보다 소속 지역구 주민의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  
② 주민의 의사가 자신의 소신과 달라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선거 공약과 상관없이 A의 생각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④ ㉡의 입장에 따르면, 소속 정당의 지시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3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 위임 방식을 채택한 국가에서 ㉢의 도입은 선택적이다.
- ② 법률안 등을 국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는 ㉢에 해당한다.
- ③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을 도입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 ④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차별 없이 대표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에 해당한다.
- ⑤ ㉢의 도입은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 [명시적 근거] 1문단 1행  
대표자 선출은 간접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명시적 근거] 5문단 전체  
② [명시적 근거] 5문단 6행  
③ [명시적 근거] 2문단 10행  
⑤ [명시적 근거] 5문단 3행

35.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누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 ② 아버지는 이 약을 복용하고 생기를 찾았습니다.
- ③ 그는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 ④ 형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 노력했다.
- ⑤ 그들은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을 찾다가 화를 입었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7수능)

(가) 제2차 세계 대전 중, 태평양의 한 전투에서 일본군은 미군 혹은 병사들에게 자신들은 유색인과 전쟁할 의도가 없으니 투항하라고 선전하였다. 이 선전물을 본 백인 장교들은 그것이 흑인 병사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급하게 부대를 철수시켰다. 사회학자인 데이비슨은 이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 얻어서 대중 매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제3자 효과(third-person effect)’ 이론을 발표하였다.

(나) 이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이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있다. 곧 사람들은 수용자의 의견과 행동에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 때 어떤 후보에게 탈세 의혹이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다고 하자. 그때 사람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에 자신보다 다른 독자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현상을 데이비슨은 ‘제3자 효과’라고 하였다.

(다) 제3자 효과는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대중 매체가 건강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전달할 때보다 폭력물이나 음란물처럼 유해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람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크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수용자의 구체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제3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내용물의 심의, 검열, 규제와 같은 법적·제도적 조치에 찬성하는 성향을 보인다.

(라) 전통적으로 대중 매체 연구는 매체에 노출된 수용자의 반응, 즉 그들이 보이는 태도나 행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에 비해 제3자 효과 이론은 매체의 영향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차별적 인식 및 그에 따른 행동 성향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 검열과 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어떠한 것인지도 짐작하게 해 준다.

(마) 제3자 효과 이론은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처럼 보이는 것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이론과 연결되면서, 여론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은 대중 매체의 전달 내용에 쉽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영향받을 것을 고려하여 자신의 태도와 행위를 결정한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서 소외되어 고립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독서 지문 분석법

첫 단락 - 제재가 무엇인가?(->서론인가?)

(제재) 제3자 효과 이론

첫 단락에서는 제3자 효과 이론의 등장 배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재가 제시되었으므로, 이 글의 첫 단락은 서론입니다.

본문 2단락 - 각 문단의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일반적 진술) 이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이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있다.(제3자 효과 이론의 개념)

(세부 내용) 제3자 효과 이론의 개념이 제시되고,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본문 3단락 - 각 문단의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일반적 진술) 제3자 효과는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세부 내용) (다)의 일반적 진술에 대한 상술은 첫 문제에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4단락 - 각 문단의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일반적 진술) 제3자 효과 이론의 의의

전통적인 대중 매체 연구와 대비되는 제3자 효과 이론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결론 or 본문일 수 있다.  
기준은 ‘주제’다.

본문 5단락 - ㉠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 문단 간 관계? - 관계말해주는 문장/구조도

마지막 문단 - 결론인가? <- 주제제시

①설명문 : 제재+본문내용일반화+@

②논설문 : 가치판단 또는 주장

(주제가 있는가? 없다. 본문 - 일반적 진술) 제3자 효과 이론은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처럼 보이는 것에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이론과 연결되면서, 여론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제3자 효과 이론의 응용)

제3자 효과 이론이 응용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지만, 본문의 내용을 일반화하지 않았습니다. 즉, 본문과는 다른 추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은 결론이 아닙니다.

(문단들 간의 관계) 각 단락의 소주제가 두괄식으로 서술되어, 제재와 연관된 독해를 하기 쉬운 지문입니다. 특별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제3자 효과 이론에 대한 설명이 나열된 글입니다.

35.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제3자 효과 이론의 등장 배경
- ② (나): 제3자 효과의 개념
- ③ (다): 제3자 효과 이론의 유형
- ④ (라): 제3자 효과 이론의 의의
- ⑤ (마): 제3자 효과 이론의 응용

(그름달's view) 이 문제처럼 중심 화제를 찾는 문제는 독서 분석법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각 문단의 일반적 진술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35번은 정답률이 50%대입니다. 그냥 요약공부한다고 맞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맞게 고치기> 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맞는 선지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틀린 선지를 맞게 고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엄밀한 추론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③번 선택지의 '유형'이라는 말을 살려서 맞게 고치는 연습을 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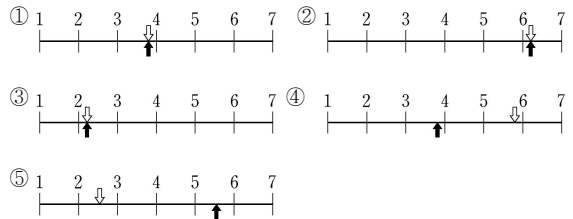
(다)의 첫 줄을 보면, '제3자 효과는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독해를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말 자체가 언뜻 보면, 제3자 효과이론이 다르게 나타나니 제3자 효과의 유형으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는 깡패다.) 예시를 이용하면, 무조건 맞힐 수 있습니다. 예시는 독해력의 깡패입니다. 3단락 2행 ‘예컨대 대중 매체가 건강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전달할 때보다 폭력물이나 음란물처럼 유해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람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크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몇 번이나 곱씹으며 첫 줄을 독해해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에서 유형화한 것은 건강 캠페인같은 바람직한 내용 vs 폭력물, 음란물처럼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이라는 내용입니다. 제 3자 효과는 그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형화한 것은 제 3자 효과가 아니라,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3번 선지는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의 유형에 따른 제 3자 효과의 양상’으로 고쳐야 합니다.

36.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표시한 것 중, 제3자 효과가 나타난 것은? [1점]

<일러두기>  
(자신: ↓, 타인: ↑)  
1: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7: 영향을 많이 받는다.



(명시적 근거) (나)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37.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돈을 얻을 곳이 또 어디 없을까?
- ② 책에서 얻은 지혜로 성공할 수 있었다.
- ③ 여행 중에 얻은 병이 아직도 낫지 않았다.
- ④ 발언권을 먼저 얻고 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 ⑤ 늘그막에 자식을 얻더니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38. ㉠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
- ② 대중 매체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 ③ 유해한 내용일수록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④ 검열과 규제가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⑤ 대중 매체에 쉽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다.

<부분문제 원칙 - 범위확정>

(부제 : 주변을 봐라?!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부분 문제'는 논리적인 범위 확정이 핵심입니다.

그 범위는 ㉠의 바로 앞이 될 수 있고, 해당 문단이 될 수 있고, 다른 문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범위 안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이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내야 시간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에 해당하는 '검열과 규제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다)에 나와 있습니다. (다)의 맨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의 입장은 제3자 효과가 크게 나타난 사람의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선택지 해설>

- ① [명시적 근거] (라) 제3자 효과 이론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연결논리]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진술은 제3자 효과가 크게 나타난 사람을 비판하는 근거이다.  
[결론] ㉠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② [명시적 근거] (나) '곧 사람들은 수용자의 의견과 행동에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결론] ㉠은 대중 매체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③ [명시적 근거] (다) '유해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람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크게 인식'  
[결론] ㉠은 유해한 내용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④ [명시적 근거] (다) '제3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내용물의 심의, 검열, 규제와 같은 법적, 제도적 조치에 찬성'
- ⑤ [명시적 근거] (나)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환율 :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경상 수지 : 상품(제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독서 지문 분석

첫 단락 - 제재가 무엇인가?(->서론인가?)

(제재가 무엇인가?)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제재가 제시되었다고 가정하므로, 서론으로 가정 (물론 이것은 무수하게 많은 훈련에 의해 감각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실제로는 관통해야지 최종 확정입니다.)

(‘예시’는 짝패다. + 독서삼편의자현)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것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문단 내용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시(또는 상술)이 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상술이 나오져? 상술을 3~4번 이상 읽고 곱씹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수능기술로 단순히 읽고, 문제풀이를 연습하는 것뿐 아니라, 이런 필수적인 독해전략들을 익혀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환율도 교수님은 경제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도 여러번 읽으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주석에 달아놓으셨습니다.

본문 2단락 - 각 문단의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제재와 연관된’ 일반적 진술) 제재가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CASE인 J커브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재와 연관시켜서 본문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 진술)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 'J커브' 첫 줄입니다.

(세부 내용) '또한'이라는 접속사를 보고, 무엇이 첫 번째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①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 ②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 된다.
- ③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이런 3가지 이유로 J커브현상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단락 - ① 각 문단의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 ② 문단 간 관계? - 관계 말해주는 문장/구조도

(일반적 진술 & 2문단과의 관계) 환율 상승이 경상 수지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2 :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문단과의 관계) 첫 문장을 보세요.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평소에 우리 방법론처럼 문단간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이었다면 '습관적'으로 파악했을 것입니다. J커브 현상이 환율 상승이 경상 수지를 악화시켰다가 개선되는 현상이라면, 3단락에서는 경상 수지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두 단락은 1단락의 제재에 대한 서로 다른 사례들로, 병렬적 구조가 나타납니다. 세 문단 간 구조도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결론 or 본문일 수 있다.  
기준은 '주제'다.

본문 5단락 - ①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② 문단 간 관계? - 관계말해주는 문장/구조도  
마지막 문단 - 결론인가? <- 주제제시  
① 설명문 : 제재+본문내용일반화+@  
② 논설문 : 가치판단 또는 주장  
마지막 문단 - 결론인가?

(주제가 있는가? 주장이 있다. 결론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본문의 내용이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사용한 글쓴이의 주장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 39. 위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 ① 환율 상승에 따르는 수입 상품의 가격 변화
- ②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
- ③ 가격 변화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지체된 반응
- ④ 국내외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
- ⑤ 환율 상승이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정답 선택지 해설>

- ② [명시적 근거] 4단락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연결논리] 환율 정책의 실시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 까지는 언급을 했지만,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결론]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에 대해서는 다루지않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 [명시적 근거] 1단락 5행
- ③ [명시적 근거] 2단락 10행
- ④ [명시적 근거] 3단락 3행
- ⑤ [명시적 근거] 1단락 1행

### 4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J커브 그래프를 해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가.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 비율이 환율 상승 비율에 가까울수록 ㉠의 골이 알아진다.  
나. 수출 기업의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 구간이 넓어진다.  
다. ㉡를 기점으로 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르. ㉢는 환율 상승을 통해 경상 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 ① 가, 르      ② 가, 르      ③ 나, 르
- ④ 가, 나, 르      ⑤ 나, 르, 르

독서 분석법 상, J커브는 2문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일이 없도록 바로 2문단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 [명시적 근거] 'J커브 현상에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연결논리]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상품의 가격이 오른다면,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결론] ㉠의 골은 알아진다.

(나) [명시적 근거 1] 3문단 1행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명시적 근거 2] 3문단 7행 '둘째,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수출 기업의 품질 및 원가 경쟁력에 관한 내용은 3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독서분석법 상 2,3단락이 병렬적이므로(별도의 내용으로), 3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J커브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다) [명시적 근거] J커브 현상은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다.

[연결논리] ㉡ 이전에도 환율은 상승한 상태였다.

[결론] 환율의 상승은 원점을 기점으로 한다.

(르) [명시적 근거]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4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외 상품의 수요 구조에 따라 수출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될 수 있다.
- ②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국내외 기업은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관찰한 후 가격을 조정한다.
- ③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가격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국내외 상품 수요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⑤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는 경상 수지의 개선 여부와는 무관하다.

<부분문제 원칙 - 범위 확정>

부분 문제입니다. 범위 확정을 하기 위해 ㉠이 어떤 내용의 문장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포함된 문장을 살펴보면,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문장은 앞 문장을 재서술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 이유는 앞 문장을 이용하여 찾아내야 합니다. 앞 문장을 살펴보면,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반응하는 양상에 따라 경상 수지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환율의 상승)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그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42. ㉠에 대해 <보기>처럼 이해한다고 할 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_\_\_\_\_ 더니,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만 믿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말이군.

- ① 감나무 밑에 누워 흥시 떨어지기를 바란다
- ②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 ③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어렵다
- ④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 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명시적인 근거] 3단락 7행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결론] ①번 선택지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니 지문내용과 부합한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9.9평가원)

(가) 딸의 생일 선물을 깜빡 잊은 아빠가 ㉠ “내일 우리 집보다 더 큰 꿈 인형 사 올게.”라고 말했다고 할 때, 아빠가 발화한 문장은 상황에 적절한 발화인가 아닌가?

(나) 발화의 적절성 판단은 상황에 의존하고 있다. 화행 이론은 요청, 명령, 질문, 약속, 충고 등의 발화가 상황에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성 조건을 제공한다. 적절성 조건은 상황에 대한 배경적 정보와 관련되는 예비 조건, 그 행위에 대한 진실된 심리적 태도와 관련되는 진지성 조건, 그 행위가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되도록 만드는 발화 효과와 관련되는 기본 조건으로 나뉜다. 어떤 발화가 적절한 것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전부 충족되어야 한다.

(다) 적절성 조건을 요청의 경우에 적용해 보자. 청자가 그 행위를 할 능력이 있음을 화자가 믿는 것이 예비 조건, 청자가 그 행위를 하기를 화자가 원하는 것이 진지성 조건,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세요.”라는 발화는, 산타 클로스의 존재를 믿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발화이지만 수행할 능력이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예비 조건을 어긴 요청이 된다. “저 좀 미워해 주세요.”라는 요청은, 화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상황이라면 적절하지만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진지성 조건을 어긴 요청이 된다. “저 달 좀 따주세요.”라는 요청은,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정말로 달을 따러 가게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본 조건을 어긴 요청이 된다.

(라) ① 둘 이상의 조건을 어긴 발화도 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저 달 좀 따주세요.”의 경우, 화자는 청자가 달을 따 줄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고 달을 따 주기를 진심으로 원하지도 않으며 또 달을 따러 가게 할 생각도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세 조건을 전부 어기고 있다. ② 그런데도 이 발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번히 사용되고 또 용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자는 이 발화가 세 조건을 전부 어기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모종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고 청자 또한 그런 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발화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유효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용인된다.

(마) ③ 화행 이론은 적절성 조건을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발화의 적절성에 대해 유용한 설명을 제공한다. ④ 그러나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너무나 복잡다단하여 이것만으로 발화와 상황의 상호 관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는 발화 상황과 연관 지어 언어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언어 이론의 공통적 한계이기도 하다.

독서 지문 분석

첫 단락 - 제재가 무엇인가?(->서론인가?)

(제재는 무엇인가?) ‘아빠가 딸에게 말한 문장이 적절한 발화인가?’ 첫 문단에서 이렇게 의문을 제시했을 때, 그 의문이 제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문은 대답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관통할 확률이 높죠. (아닐 수도 있죠) 일단 ‘가정’하고 향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재’는 글 전체를 관통합니다.) 아빠가 발화한 문장은 상황에 적절한 발화인가? 가 관통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확한 제재가 아니죠. 정확하게는 상황에 적절한 발화가 무엇일까? 가 정확한 제재입니다. 그러므로 1문단은 도입입니다. (정확하게 원칙상 제재를 제시하지 않았으니 서론이 아닙니다.)

2단락 - 제재가 무엇인가?(->서론인가?)

(일반적 진술) 발화의 적절성 판단은 상황에 의존하고 있는데, 화행이론은 적절성 조건을 제공한다.

(‘예시’(상술)는 깡패다.) 예비조건, 진지성조건, 기본조건 이해가 안된다구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황하면 바보입니다. 예시가 나올 것입니다. 상술이 나올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역시 3문단 첫줄부터 예시/상술이 나옵니다. 아주 친절하게 말이죠. 곱씹으세요. 시작!

본문 3단락 - ① 각 문단의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 ② 문단 간 관계? - 관계 말해주는 문장/구조도

(일반적 진술) 적절성 조건을 요청의 경우에 적용해 보자.

(2단락과의 관계) 2단락에 제시된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 적절성 조건들(예비 조건, 진지성 조건, 기본 조건)을 발화 중 ‘요청’의 경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주고 있으니 곱씹으면 그만입니다.

본문 4 단락 - ① 각 문단의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 ② 문단 간 관계? - 관계 말해주는 문장/구조도

(3단락의 관계) 첫 줄을 읽고 3문단은 ماذا 조건 하나를 어긴 것들을 나열했지? 이제는 2개 이상 어긴 발화를 말하겠군

(\*일반적 진술과 44번 문제) ①번 문장만 일반적 진술로 뽑는다면, 둘 이상의 조건을 어긴 발화를 3문단 하나의 조건을 어긴 발화에 이어서 나열되니 44번 문제의 ④선택지가 맞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아주 정확하게 일반적 진술을 뽑는 능력을 길러야하는 것은 fact입니다. 이것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제요소’입니다.

일반적 진술은 ① + ②입니다.(서로를 포함하지 않고, 대등합니다.) 그러므로 44번 ④번 선택지가 틀렸습니다. ‘앞 문단을 뒷받침하다가 논지가 바뀐다.’(고급스럽게는 논지가 전환됩니다.) 세 개의 조건을 모두 지켜야 적절한 발화다라고 나오다가 세 개의 조건을 다 어겼는데도 용인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묻고 있으니 전혀 다른 논지로 가고 있죠. ‘3문단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결론 or 본문일 수 있다.  
기준은 ‘주제’다.

본문 5단락 - ①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② 문단 간 관계? - 관계말해주는 문장/구조도  
마지막 문단 - 결론인가? <- 주제제시



- ① 설명문 : 제재+본문내용일반화+@
- ② 논설문 : 가치판단 또는 주장

(주제가 있는가? 본문내용일반화 있다. -> 결론) ③+④을 보면 본문내용이 일반화가 잘 되어있습니다. ③은 4문단 '물음'이전까지가 해당됩니다. 상황에 적절한 발화인지 적절성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음' 이후 3개의 조건을 다 여기었는데도 왜 용인될까? 적절하지 않지만 유효한 의사소통이다. 라고 이야기했기에 ④번 문장에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 43.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적절성 조건을 어긴 문장은 문법적으로도 잘못이다.
- ② 예비 조건은 다른 적절성 조건들보다 우선 적용된다.
- ③ 적절성 조건이 가장 잘 적용되는 발화 행위는 요청이다.
- ④ 하나의 발화도 상황에 따라 적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⑤ 적절성 조건을 어긴 발화는 그렇지 않은 발화보다 의사소통에 효과적이다.

#### <정답 선택지 해설>

- ④ 독서분석법 상 제재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의 발화가 상황에 적절한 발화일까 아닐까?' 이 물음이 발화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지 아닌지가 갈린다는 의미입니다.

#### <오답 선택지 해설>

- ① [추론할 수 있는 부분] "저 달 좀 따다 주세요."  
[결론] 기본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적절성 조건을 어겼지만,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다.
- ② [결론] 적절성 조건들 중 어떤 조건이 우선 적용되는지는 추론할 수 없다.
- ③ [추론할 수 있는 부분] "저 달 좀 따다 주세요."  
[연결논리] 요청을 하는 발화이지만, 기본 조건을 어긴 요청이다.  
[결론] 적절성 조건이 가장 잘 적용되는 발화 행위가 반드시 요청은 아니다.
- ⑤ [추론할 수 있는 부분] (마)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너무나 복잡다단하여 이것만으로 발화와 상황의 상호 관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연결논리] 발화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 적절성 조건을 지키는 것의 효율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44. 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 친숙한 예를 들어 독자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
- ② (나) :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여 논의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 ③ (다) : 구체적 사례를 통해 주요 개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라) : 다른 사례를 들어 앞 단락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마) :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독서분석법을 직접적으로 출제된 문항이고, 실제 정답률이 60%대입니다. '일반적 진술'을 정확히 뽑고, 다른 문단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방법론' style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제요소'입니다.

(1) 일반적진술 : 둘 이상의 조건을 어긴 발화도 있다. + 이런 발화가 적절하지 않은데도 용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 내용이 일반적진술이니, ④번 선택지처럼 '뒷받침한다' 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2) 다른 사례인가? 같은 사례입니다. 4단락 첫 줄 '앞서 예로 들었던 "저 달 좀 따다 주세요."의 경우' 에 보면 분명 같은 사례입니다.

<맞게 고치기>

④ '같은 사례'를 들어 앞 단락의 내용을 뒷받침'하다가' '논지가 전환' 된다.

45. <보기 1>은 ㉠의 예비 조건이다. ㉠에 대해 <보기 2>와 같이 차례로 반응을 보였다 할 때, 예비 조건에 대한 태도가 다른 사람은?

<보기1>

- 집보다 큰 곰 인형을 사 오는 것을 딸이 좋아할 것이라고 아빠가 믿는다.
- 집보다 큰 곰 인형을 사 올 수 있다고 아빠 스스로 믿는다.

<보기2>

**딸(6세)** : (셀쪽거리며) 세상에 그렇게 큰 곰 인형이 어딴 거?

**아들(4세)** : (불멘소리로) 아빠, 나도 사 줘.

**엄마** : (딸의 손을 잡으며) 그림 아빠한테 예쁜 구두 사 달라고 할까?

**할머니** : (온화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며) 그래, 구두가 좋겠다.

**할아버지** :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슨 선물을 사 주면 우리 아기가 좋아할까?

- ① 딸
- ② 아들
- ③ 엄마
- ④ 할머니
- ⑤ 할아버지

<보기 1>에 따르면, '예비 조건에 대한 태도'는 (1)'집보다 큰 곰 인형을 사 오는 것을 딸이 좋아할 것이라고 아빠가 믿는 것에 대한 태도'와 (2)'집보다 큰 곰 인형을 사 올 수 있다고 아빠 스스로 믿는 것에 대한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보기 2>의 사람들은 모두 (1)에 대해서는 아빠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에 대해서는 아들 혼자만이 아빠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집보다 큰 곰 인형을 사 올 수 있다고 믿음), 나머지 사람들은 아빠가 그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Tip. 평가원이 딸과 아들의 나이를 각각 6세, 4세로 괜히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 달리 나타나는 예비 조건에 대한 태도에 걸맞도록 한 것입니다. 아들은 매우 어리게, 딸은 아들보다는 나이가 많도록 하여 아빠가 집보다 큰 곰 인형을 사올 수 있다고 믿는지의 여부를 달리 한 것입니다. <보기> 문제를 풀 때, 세세한 정보에 예민해지도록 하세요.

46.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수돗물 잠그고 나오는 것을 잊어서 불안해요.
- ② 그는 일에 폭 빠져 자기 나이를 잊고 지낸다.
- ③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사람의 이름도 잊었어요.
- ④ 그는 괴로운 현실을 잊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 ⑤ 지난날의 감정은 모두 잊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